

## 한국심리학회지 보호관찰 관련 연구 동향: 상담 및 치료 효과 연구논문들을 중심으로

이 은 진<sup>†</sup>

김 회 주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보호관찰에 대한 심리학적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2001년부터 시작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들로부터 시작된 보호관찰 영역에서의 심리학자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학적 연구논문들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심리학회지에 발표된 보호관찰 관련 논문들은 총 42편으로 정리되었으며, 이 중 학술대회 자료집에 발표된 14편을 제외한 28편의 양적연구들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문헌고찰을 통한 보호관찰 관련 연구의 주제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상담 및 치료 효과 관련 연구와 비행이나 재범과 관련된 위험성요인과 보호요인 관련 연구들로 볼 수 있다. 치료 프로그램 효과 연구를 제외한 논문들은 일반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과의 비교연구가 7편, 보호관찰대상자를 포함하는 비행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5편, 검사지 타당화 연구가 3편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연구들로는 수사나 분류, 위험유형별 처우 방안에 대한 연구 등으로 보호관찰 분야의 실제로 연구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포함하는 청소년 대상 연구들에서 연구자들은 비행 예방이나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시설이 아닌 학교 내에서의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에 근거하여 보호관찰과 관련된 연구 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 연구동향, 보호관찰, 한국심리학회지, 치료효과, 비행 청소년

---

<sup>†</sup> 교신저자 : 이은진,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Tel : 02-392-7114, E-mail : lej1130@hotmail.com

‘2013년 9월 분당의 서현역 로데오거리에 천여 명에 달하는 분당 주민들이 ‘성남 보호관찰소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 모였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지역 주민 대상의 공청회 없이 이전이 결정되었다는 반대 주민들의 주장과 함께 언론에서는 ‘님비현상(지역이기주의)’까지 거론하였다. 최근에도 창원보호관찰소의 진주지소를 진주 혁신 도시로 이전하려는 시도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혁신 도시 공공기관 노조로부터의 반대에 부딪혔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었다. 결국 시가 중재자로 나서 지난해 10월부터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한 협약을 체결해 상생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보도되었다(국제신문, 2016). 이에 기사를 접한 많은 이들은 보호관찰소가 무엇을 하는 곳이기에 지역 내 기피기관이 되었는가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게 되었다.

보호관찰소란 ‘지역 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범죄예방 교육을 위한 수강명령을 실시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정분야에서 범죄인의 처우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내 처우를 중심으로 했던 우리나라 기존 형벌 실행체계에 대한 반성과 회의에서 출발한 사회내 처우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호관찰 제도가 소개되고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소년법 개정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 소년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과 부가 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제도가 도입되었고 성인범에게는 1989년 이후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1997년 이후 전면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시설내 처우에서부터 사회내 처우로의 방향전환은 우리나라 교정업무가 국제적인 형사정책의 조류에

부응하기 시작한 획기적인 발전이라 할 수 있다(오영근, 1999).

심리학자들의 보호관찰 영역에 대한 관심이나 기여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2001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심리학의 기여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된 시점으로부터라 볼 수 있다(강호성, 2006; 조은경, 2001). 심리학자는 보호관찰 운영에서 심리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판결전 조사에서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를 내리는 것,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과학적인 분류심사를 하는 것, 사회봉사나 수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조은경, 2001). 이후 보호관찰과 심리학 분야의 기여에 대한 요청은 심리학자 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요구되어 왔다. 보호관찰 업무 중 심리학적 접근이 유효할 수 있는 보호관찰 활동으로 보호관찰대상자 분류와 지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판결전 조사활동을 들고 있다(강호성, 2006). 보호관찰 업무에 전문성을 줄 수 있는 심리학과 연계 강화를 강조하며,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채용, 판결전조사분야에 심리검사(MMPI)의 도입과 재범 예측 요인에 대한 연구의 효율적인 활용을 그 예로 들었다. 특히 사회내 처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수강명령<sup>1)</sup>이란

1) 2012년에 개정된 ‘수강명령 집행지침’에서는 수강명령의 집행 분야로서 정신, 심리 치료 강의를 포함하는 7개 영역(① 약물·마약 알코올 치료 강의·약물 등 오남용에 대한 이해증진, 단약·단주 결심 유도 및 강화, ② 준법운전 강의, ③ 정신·심리치료 강의, ④ 성폭력 치료 강의, ⑤ 가정폭력 강의, ⑥ 성매매 방지 강의, ⑦ 기타 대상자 범죄성향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수강명령의 목표가 ‘범죄

법원이 범죄행위 대상자에게 일정시간의 강의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것으로, 범죄행위가 가해자의 잘못된 인식이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친사회적인 방식으로 인지나 행동을 수정하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심리학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정유희, 박은영, 손의철, 2014). 수강명령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실제에서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집행 인력의 확보가 필수 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조로 진행이 되어 왔으나 실제적으로는 보호관찰소 내부 인력의 참여가 미흡한 것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자체 전문인력 확보나 교육에 대한 요구들이 제기되어 왔다(강호성, 2006; 권문일, 정익중, 2005). 즉 전문성을 갖춘 민간 자원봉사자의 확보와 위탁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강조하였다(남선모, 이인곤, 2014). 1989년 수강명령이 처음 도입될 시기에는 비행청소년 교육이나 훈육의 성격이 강했으나 형법상의 집행유예 조건으로 수강명령이 부과되면서 치료적 개입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심리학자

---

를 유발할 수 있는 인지나 생활습관 등을 수정하는 심리 치료적 개입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유희, 박은영, 손의철, 2014). 특히, 성범죄자 심리치료와 관련하여 노일석(2013)은 전국의 보호관찰소에서 성범죄로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집행하는데,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근거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에서 정해진 부과시간 범위인 최대 500시간 내에서 법원 판결시 지정되고, 법원 부과시간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의 역할은 범심리학 전문가들의 활동영역에 대한 요구와도 연관이 있다. 범심리학 분야는 임상과 상담, 실험, 법적 분야로 구분되어 법원이나 법 집행, 교정과 사법적 지위를 가지는 단체에 심리학적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심리학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첫 번째 영역인 임상과 상담 분야는 범죄자나 피해자의 심리평가나 치료가 중심이 되며, 임상적 도구를 활용하여 범죄자의 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성범죄자와 같이 특정 유형의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실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실험 분야는 법적 절차와 관련된 문제들을 실험을 통해 밝혀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배심원들의 유죄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 범죄 목격자의 기억에 대한 외부 정보의 영향 등에 대한 문제들을 포함한다. 세 번째는 법적 분야로서 심리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에 대한 정책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 최근 범정심리학, 범죄심리학, 수사심리학, 교정심리학 등 다양한 하위 분야들이 포함되고 있다(김민지, 2015).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보호관찰 관련 연구들 중에서 심리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보호관찰 영역에서의 심리학적 서비스와 연구물들을 분석해 보고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에 걸친 연구 동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동향분석을 통해서 보호관찰 분야에서 심리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파악하고 또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호관찰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심리학 연구를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수강명령과 관련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논

문들에 중점을 두고 분석할 것이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인화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도 제언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 하에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보호관찰과 관련한 심리학 연구논문들의 연구방법과 주제별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심리학 연구 내에서 보호관찰과 관련된 연구 논문들 중에서 상담과 치료효과 관련 연구들의 세부적인 주제나 변화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현재까지의 치료효과 관련 연구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추후 보호관찰 영역의 프로그램 개발에 제언할 것은 무엇인가?

## 방 법

### 논문 선정 기준

본 연구에서 살펴본 논문들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에서 2015년 12월 30일 까지 한국심리학회지에 발표된 국내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2016년 현재 한국심리학회에 소속된 15개 분과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14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 13분과 중독은 2016년 6월 30일 창간호 발간 예정이며, 14분과 코칭은 학회지가 발간되고 있지 않아 검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학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이 포함되어 총 14종이 검색 대상이 되었다. 산학학회의 학회지들은 한국 연구재단 등재지이거나 등재후보

학술지로 분류되었다. 셋째, 한국심리학회 산하학회에서 발간하는 분과 학회지 검색서비스를 통해 '보호관찰'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42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이는 제목이나 초록에 '보호관찰'이 포함되어 있거나 본문의 연구 대상에 '보호관찰대상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 것이다. 이 중에서 14편의 논문들은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초록만 있거나 추후 학회지에 발표되기 위한 예비 연구 형식이 많아 이들 학술발표논문들은 최종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일부는 논의에서 동향 분석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최종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된 한국심리학회의 산하 학회지 게재논문은 총 28편이었다.

보호관찰 분야의 연구들은 법(원혜옥, 2009), 사회복지(손순용, 양철호, 2009; 허정철, 2013), 아동학(문희정, 양성은, 2012), 체육학(양은석, 2003)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 분야의 연구들이 보호관찰 영역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심리학회지 국내 논문들로 그 검색 범위를 제한하였다.

### 분석 방법

보호관찰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동향 분석을 시도하였던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분석기준을 정하였다(김봉환, 배주연, 오효정, 윤영선, 제갈원, 2012; 김원경, 전제아, 2010). 분석기준으로는 연구 발표 시기와 학술지 분야, 연구 방법, 연구 주제 및 내용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동향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연구주제와 내용 측면에서 프로그램 효과 관련 연구의 내용들을 자세히 분석하였

다.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논문들 분석에서는 연구 현장의 변화 추이도 살펴보고 연구자들의 소속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였다.

### 연구 발표 동향

보호관찰 관련 연구들의 발표 시기와 게재된 산학학회 학술지별 발표 논문들의 빈도와 추이를 살펴보았다. 연도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함한 최초 연구가 발표된 1997년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게재논문 편수를 살펴보았다.

### 연구 방법 동향 분석

연구 방법은 연구 대상, 연구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에는 보호관찰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 비교 대상이 포함되었는지 구분하였으며, 보호관찰 대상 중에서도 특별한 조건이 있는 대상자들을 포함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유형은 사용하는 방법론에 따라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중재연구)로 구분하였다. 양적 연구는 수량적 자료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연구를 의미하며, 질적 연구는 개별 면담이나 포커스 그룹 등을 활용하여 얻은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사례분석을 한 연구를 이른다. 중재 연구라고도 칭해지는 프로그램이나 치료효과 관련 논문들은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을 말하며, 문헌 연구는 문헌 고찰을 통해 연구 동향이나 이론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결과를 도출한 연구로 정의하였다.

### 연구 주제와 내용 분석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의 연구주제와

관련 변인들을 분석하여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이론적인 기초를 세워 주요 변인들을 사전에 정하고 분류, 결과 도출하여 논의하는 식이 아니고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논문들을 통해 주요 주제와 내용의 특성이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결 과

### 보호 관찰 관련 연구논문 게재 동향

논문의 게재 경향을 연도 별로 살펴보면, 1997년에 1편이 발표 된 이후, 2001년부터 매 5년간 10편 정도가 발표되었으며 총 30편이 게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의 연도별 발표 추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대 들어 2003년에는 발표 논문이 없었으며, 2002년 3편, 2005년 4편, 2009년 3편, 2014년 3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표 편수의 추이는 최근 5년간에도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보호관찰 관련 연구들이 보호관찰과 관련된 새로운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다른 분야의 학술지에 발표되었을 가능성을 추

표 1. 보호관찰 연구 심리학회지 게재 논문 편수

연도	편수	비율(%)
1997	1	3.5
2001-2005	8(4)*	28.7
2006-2010	10(4)	35.7
2011-2015	9(2)	32.1
계	28	100.0

\* ( )는 프로그램 효과 논문 편수

표 2. 산하학회지별 게재 논문 편수

산하학회지	편수	비율(%)
일반	3	10.7
제 1분과 임상	9	32.1
제 2분과 상담 및 심리치료	2	7.1
제 4분과 사회 및 성격	1	3.6
제 5분과 발달	1	3.6
제 7분과 문화 및 사회문제	4	14.3
제 8분과 건강	2	7.1
제 9분과 여성	2	7.2
제11분과 학교	1	3.6
제12분과 법정	3	10.7
계	28	100.0

론하게 한다(김일수, 2009).

산하학회 학회지별로 게재 편수를 정리해 보면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일반’과 9개 산하 학회지에서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는 ‘임상’과 ‘문화 및 사회문제’로 각각 9편, 4편이 발표되었다. ‘법정’의 경우에는 2010년 3월 창간된 것을 고려하면, 향후 보호관찰 관련 연구들이 많이 게재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창간호 인사말에서 이수정(2010)은 ‘심리학이라는 순수 학문 분야와 법무행정이라는 실무영역을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보호관찰 분야 또한 심리학이 기여할 수 있는 법무 행정의 실무영역이라 할 것이다.

#### 연구방법별 분석

분석방법에 따라 분류한 결과, 총 28편의 보호관찰 관련 논문들은 프로그램 효과 측정

논문 10편을 포함하여, 모두가 양적 연구논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심리학회 분과학회지가 아닌 학회지에는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수강명령 이행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문희정, 양성은, 2012)나 재사회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손순용, 양철호, 2009) 등이 발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심리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에 한하여 분석하였다. 문헌연구로 구분할 수 있는 논문은 보고된 바 없으나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고 이러한 시도들은 향후 문헌고찰을 통한 문헌 연구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강호성, 2006; 김민지, 2013; 조은경, 2001).

#### 주제별 분석

연구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참가자로서 하는 수강명령에 의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논문이 10편, 일반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과의 비교연구가 7편, 보호관찰대상자를 포함하는 비행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5편, 검사지 타당화 관련 연구가 3편이

표 3. 보호관찰 연구 주제별 분류

주제	편수	비율(%)
1. 보호관찰 프로그램 효과	10	35.7
2. 일반청소년과의 비교연구	7	25.0
3. 보호관찰대상자를 포함하는 비행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연구	5	17.9
4. 검사지 개발 및 타당화	3	10.7
5. 기타 연구	3	10.7
계	28	100.0

있고 기타로 분류되는 수사면담이나 분류·유형별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가 3편으로 정리되었다.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논문들은 다음 절에서 별도로 연구 내용별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 논문들 중에 10편의 프로그램 효과 논문을 제외한 보호관찰과 관련된 연구논문들에서는 일반 청소년들과 보호관찰 혹은 비행청소년들과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비교연구들이 두드러졌다. 이철원(1997)은 충동성이 높은 일반인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분하여 처벌과 보상이 문제해결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후 보호관찰과 일반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부모자녀관계(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와 도덕적 정서(이희정, 이성철, 2005), 도덕적 이탈, 자기효능감, 가출과 학업성취를 포함하는 심리 행동특성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에 대한 비교연구로 이어졌다. 이후 일반 청소년들을 비행청소년이나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들과의 비교를 위해, 보다 다양한 심리적 환경적 특성의 차이에 대해 탐색적으로 연구되었다(김의철, 박영식, 탁수연, 2010; 임유경, 오경자, 2010). 얼굴 표정 정서인식의 민감도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임유경, 오경자, 2010)에서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보호관찰 중인 비행청소년들이 얼굴 표정에서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정서인식 훈련이 포함된 적이 없음을 지적하고 타인의 고통을 초래하는 비행이나 공격적 행동을 멈추는 결정을 하도록 교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보호관찰 대상자를 포함하는 비행청소년들

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은 환경적 요인과 재범과의 관계성(황진규, 2011), 가족의 응집력(송원영, 2012), 냉담-무정서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송보경, 이주영, 2014), 그리고 위험요인들(박지선, 2015)과 초기심리 도식과 정서경험의 양상(최중현, 박중규, 2015) 등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2011년 이후에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는 보호관찰 제도가 자리 잡는데 20년 이상이 걸렸고 이러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음을 짐작하게 한다(김일수, 2009; 원혜옥, 2009).

보호관찰 분야의 연구들에서 심리적 특성에 대한 다양한 척도들이 사용되어 왔으나 2009년 이후 보호관찰이나 비행 분야에 특화된 척도들에 대한 개발과 타당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절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LIP-RRAR)의 개발(노일석, 2009), 여자 폭력청소년 보호관찰자 재비행위험성 평가도구 개발(노일석, 정진경, 2009), 그리고 QACSO(Questionnaire of Attitudes Consistent with Sexual Offending)의 타당화 연구(장은영, 이수정, 손외철, 2014)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특히 지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의 성에 대한 인지 왜곡을 평가하기 위해 Lindsay 등(2005)이 개발한 QACSO(Questionnaire of Attitudes Consistent with Sexual Offending) 검사를 국내에 소개하고 타당화연구는 범죄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이나 분류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적 장애를 지닌 보호관찰 대상으로 연구 대상을 넓혀간 예로 볼 수 있다. 연구자들(장은영, 이수정, 손외철, 2014)이 논의

한 바와 같이 지적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많지 않은 논문 편수로 인해 따로 주제로 구분되지는 않았으나 보호관찰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수사면담(김시업, 2012)이나 보호관찰 분류지침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이수정, 이민식, 홍영오, 김양곤, 2005)와 성범죄자의 위험유형별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이수정, 전주희, 2007) 등이 진행된 것으로 정리되었다. 특히 보호관찰대상자 분류나 범죄 유형별 처우를 위한 연구들은 앞선 연구들에서 처우의 다양화를 위해 대상자 특징에 따라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 개발 과제를 언급했던 타 분야 연구자들(원혜옥, 2009)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노력들이라 할 것이다.

#### 연구주제별 분석: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효과 논문들

본 연구에서는 10편의 치료 효과논문들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발표된 분과학회지는 임상이 6편, 일반, 상담 및 심리치료, 건강, 학교에 각각 1편 씩 발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1년부터 2014년 사이에 2003-2006년, 2011, 2012년을 제외하고 매해 1편씩 발표되어 왔다.

2001년 약물남용 비행청소년을 위한 생활기술 훈련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논문으로부터 2014년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효과를 추적 연구한 논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그 효과를 측정하여 보고되어 왔다. 보호

관찰대상자 특성별로는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자 대상이 4편이었고 약물이나 마약이 2편,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행 충동 저하나 도덕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4편으로 나타났다. 10편의 논문들 중에서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박상규, 2002)이나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정유희, 박은영, 손외철, 2014)의 대상만이 성인을 포함하고 있었다. 부모교육을 포함한 연구(이은진, 2009)도 있었으나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결과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한해 보고되어, 8편의 연구들은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내용과 대상, 연구자의 소속기관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효과 논문들이 2008년부터 발표되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인지행동치료를 중심으로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었고 그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송원영, 노일석, 신의진, 2013; 송원영, 오경자, 신의진, 2008; 이은진, 2009; 정유희, 박은영, 손외철, 2014).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주요 원칙과 방향에 대한 문헌연구를 했던 연구자들(윤정숙, 이수정, 2012)은 국내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위험성, 욕구, 반응성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함과 장점기반의 접근(strength-based approach)에 대한 모색을 들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행과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 기여'가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실무자와 연구자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들의 소속기관에 따른 분석은 현재까



표 4.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효과 검증 논문

번호	논문제목	연구대상	연구자	연구자 소속	발표학회지와 시기
1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 수감명령 프로그램 효과: 단기 재범 추적연구	성범죄 보호관찰대상자 196명, 가정폭력 보호관찰 110명	정유희 박은영 손외철	서울보호관찰소, 대전보호관찰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4), 2014.12.
2	청소년 성범죄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장기효과검증: 7년 추적 연구	보호관찰 청소년 196명	송원영 노일석 신의진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회의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3), 2013. 8.
3	품행장애 성향의 청소년을 위한 도덕성 향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대안학교 29명, 중학교 30명	최빛내 김남재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3), 2010.12.
4	보호관찰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보호관찰 성폭력 가해 청소년 30명과 가족 15명	이은진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2009.3.
5	청소년 성폭력범죄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개발 및 단기 효과 검증	성폭력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73명	송원영 오경자 신의진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2), 2008.5.
6	의미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우울, 삶의 목적 및 비행중동에 미치는 효과	보호관찰 청소년 265명	김자경 손정락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1), 2007.2.
7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자기사랑하기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보호관찰소 수강대상14명	박상규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2002.11,
8	자원봉사자에 의한 개인상담과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비행 : 탐색적 연구	보호관찰 청소년 130명	오경자 홍은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2002.5.
9	가상환경을 이용한 EEG 바이오피드백 훈련이 주의력 및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보호관찰 청소년 34명	문병희 현명호 이장한 김인영 김재석 김선일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한양대학교 의공학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1), 2002.4.
10	약물남용 비행청소년을 위한 생활기술 훈련프로그램의 효과	보호관찰 청소년 40명 (청소년약물사용 고위험군선별검사와 한국형 청소년약물중독검사 선별검사 고득점)	이영순 천성문 김정희	춘해대 상담심리과, 경성대 교육학과, 전북대 심리학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001.8.

지 이루어져 온 보호관찰 분야의 심리학적 치료효과 연구들의 현장을 확인하고 연구자들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자들의 소속은 대학이나 법무부 소속으로 구분되었으며, 대학에서의 전공은 심리학, 의공학, 교육학, 의학 등으로 나타났다. 주제를 치료효과 논문으로 국한하지 않았다면 공동 연구자들의 대학 내 전공들도 보다 다양하게 나타났을 것이다.

상담과 치료 효과에 대한 논문들 중에 EEG 바이오 피드백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는 향후 프로그램 연구들이 다양화되고 새롭고 효율적인 치료적 접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프로그램 참가자의 특성에 맞추어진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할 것이나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가상환경 관련 분야의 연구 결과들을 보호관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속으로 접목시키는 것도 기대해볼 만 하다.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교육 시도(이은진, 2009)는 가족과 관련된 변인들을 포함한 연구들(박상열, 2012; 박지신, 2015; 송원영, 2012)에서도 강조되어 온 바와 같이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8편의 연구대상이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연구의 편이성과 함께 재범방지를 위한 청소년기 교육이나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에게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보호관찰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심리학 연구논문들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국심리학회지에 발표된 보호관찰 관련 논문들 28편을 분석해 보았다. 문헌고찰을 통한 보호관찰 관련 연구의 주제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관련 연구와 비행이나 재범과 관련된 위험성요인과 보호요인 관련 연구들로 분류되었다.

문헌 고찰 결과에 근거하여 보호관찰 관련 심리학 연구의 경향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심리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은 10편의 치료 프로그램 효과 연구를 제외하면, 일반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과의 비교연구가 7편, 보호관찰대상자를 포함하는 비행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5편, 검사지 타당화 연구가 3편이었으며, 기타 연구들로는 수사나 분류, 위험유형별 처우 방안에 대한 연구 등으로 보호관찰 분야의 실제로 연구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 방법 측면에서 양적연구에 국한되었고, 보호관찰 분야에 대한 심리학적 기여의 중요성을 주장한 문헌연구는 학술대회에 자료집에 수록되었으나(강호성, 2006; 김민지, 2013; 조은경, 2001) 추후 학회지에 정식논문으로 발표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까지 한국심리학회지에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없었으나 사회복지학(송순용, 양철호, 2009)이나 소비자동학(문희정, 양성은, 2012)의 분야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논문들이 발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심리학 분야에서도 보호관찰과 관련된 주제로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보다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고대해 본다.

둘째,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논문들을 분석해 본 결과, 학교나 법무부

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수강명령에 의해 실시되는 보호관찰자 대상의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숫자는 10여 편에 그쳤고, 중복되는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된 논문들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보호관찰과 관련된 상담이나 치료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들이 심리학 분야에서 많지 않음을 추론하게 하는 한 단서이다. 그 원인으로는 보호관찰 분야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영역이 심리학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거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심리학자들의 기여와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강호성, 2005; 김일수, 2009; 남선모, 이인곤, 2014; 원혜옥, 2009) 향후 연구영역이나 연구자의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연령대나 범죄유형 등의 대상자의 특성별이나 치료이론별로 다양한 시도들이 심도 깊게 진행되어 보호관찰의 오랜 과제로 대두되어온 수강프로그램의 다양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호관찰연구들은 대부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최초 범법연령이 향후 재범에 주요 예측 요소가 된다는 연구들(박지선, 2015)을 보더라도 청소년기의 비행 예방교육이나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시기의 즉각적인 개입과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의 부재로 인해, 비행청소년을 양산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결국 정부나 국가는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의 투입이라는 정책구조 속에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

라 정부에서는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의 다양한 대안들도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은 아직 성인에 이르지 못한 사회적·심리적으로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인지 이론에 중점을 둔 학교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다(Flay & Carol, 2003; Lemerise & Arserino, 2000). 이러한 주장들을 보호관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제언 부분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심리학 분야에서 보호관찰이 연구되어온 역사를 발표논문들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 보호관찰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논한 논문에서 김일수(2009)는 향후 과제로서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는 재활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그 프로그램을 함께 엮어갈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으나 최근 연구(남선모, 이인곤, 2014)에서도 전문가에 의한 위탁교육의 강화를 언급하면서 전담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채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김민지(2013)는 법정 및 범죄 분야 정책변화와 심리학자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통해 법학자 뿐 아니라 경찰, 교정, 보호관찰소 등의 법체계와 법집행 종사자들의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향후 보호관찰 분야에 심리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들이 진출하고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된다면, 심리학이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비행이나 범죄 예방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호

관찰의 실제적인 역사가 30여년을 바라보는 현실 속에서 30편이 되지 않는 심리학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라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이와 관련된 제한점과 함께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심리학 분야의 보호관찰에 대한 연구논문들에 대한 문헌고찰을 목적으로 하여, 분석 대상 논문을 한국심리학회지에 발표된 것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이 다양한 학회지에 기고하는 추세를 반영한다면, 추후 보호관찰과 관련된 학회지의 논문들을 모두 포함한 보호관찰에 대한 연구 추세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분석 대상 논문이 많지 않아 청소년과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연구들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소년과 성인 보호관찰 분야는 그 특성이 다르고 실제 현장에서도 재활이나 적응에 대한 목표가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보호관찰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자료가 축적된다면 청소년과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와 연구의 결과물들이 발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심리학 연구 내에서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외 자료들에 대한 비교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국내의 보호관찰의 역사가 28년에 이르렀으나, 우리보다 30년 이상 앞선 해외의 제도들을 참고하거나 연구논문들을 참조하는 것은 우리 보호관찰 분야의 청사진을 그려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성범죄자 치료에 있어 외국의 경우 의사소통과 적극성 훈련, 역할극, 드라마 치료 등의 다양한 행동치료 방법을 사용(Hudson & Ward, 2000; Marshall, Anderson, & Fernandez, 1999)하기 도 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제언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이루어진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은 심리학 분야의 연구 결과들을 범죄자 교정과 보호관찰 제도의 수강 프로그램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에서 이루어져 왔다. 성범죄와 같은 특정영역에서는 심리학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분류지침에서부터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까지 주도적으로 참가해 왔다. 이러한 심리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적용할 수 있는 보호관찰의 분야를 넓혀가는 것이 향후 과제일 것이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비행의 보호요인이나 위험요인들을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연구자들과의 협동 프로젝트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유정과 오경자(2010)가 언급했듯이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얼굴표정 정서인식 민감도 훈련과 같은 새로운 요소들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보호관찰 연구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청소년기의 또래에 대한 민감성과 정체감 혼미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부터의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비행예방이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서구에서는 학교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폭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인지적 행동치료를 기초를 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폭력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떠한 맥락 또는 기제를 통해 학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상적 경험에 대한 예방과 중재가 이루어지고, 폭력성을 유발시키는 사회적 지식이나 기술 또는 행동에 대해 적절한 예방과 중재가 같이 이루어진다면,

폭력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인지-행동적 중재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공격성이나 문제행동, 폭력성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이러한 인지-행동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정보처리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자기 통제나 공감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소년들의 괴롭힘 문제, 공격성, 문제행동이나 폭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지-행동적 중재프로그램에 대한 실증적 지지가 입증되었다(Wilson & Lipsey, 2000). 이러한 결과들에 근거하여 보면, 청소년기의 비행 예방 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하면서 심리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집중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청소년 범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초기에 개입하여 예방하는 것이다. 기존 예방 프로그램들 중 효과성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인지-행동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학교에서의 활용가능방안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보호관찰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심리학자들의 전문성을 알리고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인 적용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호성 (2006). 보호관찰 현장에서의 심리서비스의 요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6(1), 107-128.  
권문일, 정익중 (2005). 보호관찰사업에 있어서

민관협력모델의 적용과 과제.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6.  
김봉환, 배주연, 오효정, 윤영선, 제갈원 (2012). 상담 분야의 질적연구 동향분석(2002-2011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729-752.  
김민지 (2013). 법정 및 범죄 분야 정책변화와 심리학자의 역할,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1), 98-98.  
김시업 (2012). 수사면담 시 라포의 구성: 네 가지 라포형성 기법을 사용해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3), 487-506.  
김일수 (2009). 한국 보호관찰 20년의 성과와 과제. 보호관찰, 19(1), 7-20.  
김의철, 박영신, 탁수연 (2010).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친구관계 비교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4), 487-508.  
김자경, 손정탁 (2007). 의미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우울, 삶의 목적 및 비행충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1), 1-19.  
남선모, 이인곤 (2014). 수강명령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62(2), 31-54.  
노일석 (2009). 청소년 절도사범 재범 예측 요인: 절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LJP-RRAR)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449-470.  
노일석, 정진경 (2009). 여자 청소년 폭력사범 재범 예측 요인: 여자 폭력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FVJP-RRAR)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365-386.  
문병희, 현명호, 이장한, 김인영, 김재석, 김선일 (2002). 가상환경을 이용한 EEG 바이오

- 피드백 훈련이 주의력 및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1), 81-96.
- 문희정, 양성은 (2012). 보호관찰 청소년의 상담수강명령 이행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참여 청소년들의 긍정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1), 5-30.
- 박상규 (2002).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자기사랑하기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693-703.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0). 한국 일탈 청소년의 도착심리 탐구: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1), 107-145.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6).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비교: 도덕적 이탈, 자기효능감, 가출,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2), 45-76.
- 박지선 (2015). 비행청소년의 전과 유무에 따른 제반 특성 및 위험 요인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6(2), 71-84.
- 손순용, 양철호 (2009). 보호관찰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연구, 17, 61-82.
- 송보경, 이주영 (2014). 냉담-무정서 특질과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및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3), 633-660.
- 송원영 (2012). 가족응집력이 성범죄 청소년의 성중독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1), 217-227.
- 송원영, 노일석, 신의진 (2013). 청소년 성범죄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장기 효과 검증: 7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3), 667-682.
- 송원영, 오경자, 신의진 (2008).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개발 및 단기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2), 547-569.
- 양은석, 황승현 (2006). 협동 신체활동과 집단 상담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과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 발육발달, 14(1), 37-49.
- 오경자, 홍은애 (2002.5). 자원봉사자에 의한 개인상담과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비행: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269-279.
- 오영근 (1999). 보호관찰 시행 10년의 회고와 전망. 제 24회 형사정책 세미나 자료집: 보호관찰제도의 회고와 전망.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정숙, 이수정 (2012).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주요원칙과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47-875.
- 이수정, 이민식, 홍영오, 김양곤 (2005). 보호관찰 분류지침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141-165.
- 이수정, 전주희 (2007). 성범죄자의 위험유형별 처우 방안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3), 117-131.
- 이영순, 천성문, 김정희 (2001). 약물남용 비행 청소년을 위한 생활기술 훈련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161-185.
- 이은진 (2009). 보호관찰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109-131.

- 이철원 (1997). 처벌과 보상이 충동성 집단의 문제해결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31), 75-86.
- 이희정 (2006). 비행 청소년과 교도소 재소자의 성격 유형별 음악적 상호작용과 음악 선호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6(1)*, 282-283.
- 이희정, 이성칠 (2005). 보호관찰 초범과 재범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4), 51-67.
- 임유경, 오경자 (2010). 얼굴 표정 정서인식의 민감도: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4), 1029-1046.
- 장은영, 이수정, 이장규 (2014). QACSO (Questionnaire of Attitudes Consistent with Sexual Offending)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5(3), 137-166.
- 정유희, 박은영, 손외철 (2014).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 효과: 단기 재범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4), 737-760.
- 조은경 (2011). 보호관찰 제도와 심리학의 기여 방안.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95-311.
- 최중현, 박중규 (2015). 경계선 성격특성을 가진 비행청소년의 초기 심리도식과 정서경험의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3), 667-684.
- 최빛내, 김남재 (2011). 품행장애 성향의 청소년을 위한 도덕성 향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3), 353-369.
- 황진규 (2010). 보호관찰 청소년 자기조절 프로그램 연구. *보호관찰*, 10(2), 287-324.
- 황진규 (2011). 보호관찰 청소년의 환경요인 및 보호관찰 개입과 재범과의 관계성 연구: 비재범자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2(2), 115-133.
- Casey, B. J., Jones, R. M., & Hare, T. (2008b). The adolescent brain.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124, 111-126.
- Dodge, K. A., & Pettit, G. S. (2003). A biopsychosocial model of the development of chronic conduct problems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9, 349-371.
- Durlak, J. A., Weissberg, R. P., Dymnicki, A. B., Taylor, R. D., & Schellinger, K. B. (2011). The impact of enhancing students'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A meta-analysis of school-based universal interventions. *Child Development*, 82, 405-432.
- Flay, B. R., & Carol G. A. (2003). Long-term effects of the Positive Action Program.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27, 6-21.
- Flay, B. R., Carol, G. A., & Nicole, V. O. (2001). Effects of the Positive Action program on achievement and discipline: Two matched-control comparisons. *Prevention Science*, 2, 71-90.
- Frey, K. S., Miriam K. H., Jennie L. S., Leihua Van Schoiack - Edstrom, Elizabeth P. M., & Carole J. B. (2005). Reducing playground bullying and supporting beliefs: An experimental trial of the Steps to Respect® Program. *Developmental Psychology*, 41, 479-491.
- Hudson, S. M. & Ward, T. (2000). Relapse prevention: Assessment and treatment implications. In D. R. Laws, S. M. Hudson, & T. Ward (Eds.), *Remaking relapse prevention*

- with sex offenders: A sourcebook* (pp. 102-133).  
Thousand Oaks, CA: Sage.
- Lemerise, E. A., & Arsenio, W. F. (2000). An integrated model of emotion processes and cognition in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Child Development, 71*, 107-118.
- Marshall, W. L., Anderson, D., & Fernandez, Y. (1999).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sexual offender*. Chichester, UK: Wiley.
- Wilson, S. J., & Lipsey, M. W. *Wilderness challenge programmes for delinquent youth: a meta-analysis of outcome evaluation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000.
- 1 차원고접수 : 2016. 03. 07.  
심사통과접수 : 2016. 03. 22.  
최종원고접수 : 2016. 03. 31.



## Research Trends Concerning Probation in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Centering the Studies on the Effect of Counseling or Therapy Program

Eunjin Lee

Hee Joo Kim

Department of Forensic Psychology,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The need of psychological service for probation were discussed from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researches on probation in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for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 Several important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howed that the papers in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were 28 in total, and the statistical analytic methods were quantitative. Second, the principal areas of the research and publication were divided into two areas; the effects of counseling and therapy programs, and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n recidivism. Third, the studies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n recidivism were divided into ① comparison researches among adolescents under probation and middle or high school students, ② researches of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juvenile adolescents, ③ researches on the validity and development of scales, ④ probation case classification, legal dispositions for risk types of sex offenders, and investigative interview.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importance of school education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and recidivism, were discussed. Lastly, the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further study were suggested.

*Key words* : research trends, probation,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effects of therapy, juvenile adolescents